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는 스마트 상근쌤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복잡한 입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대학으로 가는 길. 강남인강에서 만든 아주 멋진 입시 관련
강의인데요. 저번 시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각 전형별로

특징과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분께는 굉장히
복잡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네라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복잡하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일단 입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요.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성이긴 한데 공부는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을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입시라고 하는 걸요. 교사뿐 아니라

솔직히 교사도 공부가 필요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시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시스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생과 학부모도 같이 공부해야 되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뭐 현실에 대해서 아무리

비판을 해봤자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현실을
최대한 우리의 상황에 가장 유리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학부모님들 특히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입시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시가 막 책을 써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입시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전반적인 어떤 흐름, 트렌드라든가 흐름을요.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바뀌거나 새로운

트렌드 정도만 연예 기사 읽듯이 보시면 돼요. 연예 기사
읽듯이 교육과 관련된 특히 입시와 관련된 기사 나오면요. 한번

찾아보시고 적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시의 변경
사항이 부모님들의 자녀분들과 연계가 돼있다면 기록을

해놨다가 자녀와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과 전략이 뭔지를요. 같이 공부해보셔야 됩니다. 간혹 보면

부모님들이 모든 걸 다 학교에 맡기거나 혹은 사교육, 컨설팅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가주시는 게 좋아요. SKY캐슬처럼

다 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아이의 진로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아이의 성적대가 어느 정도인지 봐주셔야

되고요. 이 아이에게 적합한 전형이 어느 전형인지 정도를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전형의 특징. 쉽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강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거는 아이와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책 한 권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그게 다 입시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요. 굉장히 아이도 힘을 얻게

되고요. 아이가 어떤 진로라든가 진학의 어떤 플랜을 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 2강에서 얘기할 내용은요.

좀 웃기죠. 학년별로 올해가요. 입시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학년별로 수능이 다 다른 적은 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이슈가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학년별로 입시도 다르고요. 수능
체제도 다릅니다. 엄청나게 엉망인 한해예요. 그러기 때문에

올 한해 입시에서 살짝 삐끗하면 그다음의 입시.
즉 N수생이라고 하죠. N수생이 굉장히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3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바뀌는 어떤 변경 내용을요.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교육과정이요. 달라요.

2020학년도 즉 고3이죠. 현 고3과 현 고1, 2가 배우는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현 고3은요. 2009 개정교육과정이고요.

현 고1과 고2는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제가 개정교육과정의
특징 얘기해드렸잖아요. 2009 개정교육과정이랑

2015 개정교육과정이랑 언뜻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요. 수업 자체의 변화에 초점을 둔 겁니다. 이전까지 2009
개정교육과정은 물론 수업 시간에 활동도 하고 토론하고

탐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토대가 마련돼 있지는
않았어요. 교과서 자체가 그런 활동을 하기에 진도도 너무

많고요. 그런 활동을 교사가 스스로 짜기가 좀 힘든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 자체는요. 일단

그 진도를 나가야 될 수를 확 줄였습니다. 진도 걱정이 좀
사라지고요. 그리고 교과서 내의 직접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탐구 활동 하고 과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요.
매 단원마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만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과제탐구라든가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협동이라든가 토론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고1과 고2, 3이 다르죠. 고3과 고1, 2가 이 얘기는
뭡니까? 학생부의 기재 차이가 확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수능체제요. 다 다릅니다. 원래 교육과정이 바뀌면
수능체제도 바뀌는 건 맞아요. 왜? 배우는 교과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현 고2가 문제예요. 원래는 이 체계가
학년별로 다르면 안 돼요. 고3과 고2, 3과 딱 이렇게 한 단계만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고2가 너무 과도기 체계로
만들어놨습니다. 교육과정은 바꿨는데 수능은 바꾸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과정이 다르니까 고2와 고3의 수능
교과가 달라요. 그런데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2와

고3은 교육과정은 같아요. 교육과정이 같기 때문에 즉 배우는

게 같기 때문에 시험 범위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시험 보는

체계가 달라요. 복잡하죠? 말로만 들어도요. 진짜 복잡합니다.
여기에 학종 서류가 달라집니다. 고2와 고3은 같은 입시체계로

가요. 고1은 입시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시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서류도요. 달라져요. 그리고 학생부

기재도 달라집니다. 고2와 고3은 입시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가 똑같아요. 그런데 고1은 입시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뒤섞이죠.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년이 다릅니다. 그런데 입시체계가 다른

학년이 또 달라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달리는데
수능체계는 이렇게 가고 입시체계는 이렇게 갈리니까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그 내용이 조금만 바뀌느냐?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로 고1, 2, 3 정말로

최악의 경우 집에 애가 3명 있어요. 애가 3명 있는데 지금
고1, 2, 3입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진학 설명회 갈 때마다

엄청나게 멘붕이 오실 겁니다. 보통 1, 2, 3학년 다 같이
가잖아요. 1학년 갔더니 이런 얘기하고 2학년 갔더니 이런

얘기하고 3학년 갔더니 이런 얘기해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드시죠. 부모님들은요. 올해가 정말로 최악의 입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달라져야 될까?
그렇다고 우리가 최악인 상황에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또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입
전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2020입니다. 현재

고3이죠. 고3이 신입생이 되는 해는 2020 이건 아셔야 됩니다.
모든 대학 체계의 연수는요. 입학 체계로 가지 않아요. 고등학교

체계가 아니라 이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거로 갑니다.
그래서 고3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게 내년이잖아요. 그래서 2020

대입체계입니다. 고2 같은 경우는 2021 대입체계고요. 고1은
2022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되기 때문에 2022체계라고

불려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입은요. 고등학교
입학 기준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 기준입니다. 자, 2020년 지금

고3까지는 대학이 어떤 전형을 설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약간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대학자율입니다. 그렇죠? 뭐 교과를 20% 하든 학종을 100%
하든 대학교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2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좀 확대해라. 즉 정시를 좀 늘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공식적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비공식적으로 이슈가 돼서

몇몇 대학은 정시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런데 고2와 고3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대학

입시를 짤 때 3년 예고제라고 해서 대학은요. 3년 전에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2와 고3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뭘요? 수능 위주의 정시를 30% 이상

하라라고 권고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바람에 거의 이제 가이드라인화 돼버렸어요. 너네가 만약에

우리의 30% 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대학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돈 확보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돈을 이제 가지고 대학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재정지원연계를 뭐로 했냐면 학종
가지고 했어요. 왜냐하면 수능이 솔직히 이제 고등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업
자체를 다 문제풀이화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학종 자체는

논란이 많긴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수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게끔 합니다. 문제풀이보다는 애들한테 좀 더 지식에

대한 탐구도 좀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학종이

좋다라고 해서 학종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도 많이 하고 학종에
대해서 인원수를 많이 뽑는 대학에게 재정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학종에 대한 비판이 올라가고 정시는
늘려라라고 하는 여론이 세지다 보니까 웃긴 게 재정지원연계를

수능 가지고 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좀
찔렸나 봐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집어넣어요. 그래, 수능

정시 30은 좀 힘들 수 있어. 왜냐하면 지방 대학이 싫어합니다.
신입생 모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정시를 늘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 대신에
학생부 교과가 30% 이상인 대학은 이걸 안 따라도 돼라고

했어요. 정시를 30% 늘려야 돼. 늘리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교과 전형을 30% 이상인 대학들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가이드라인에 걸리는 대학이요.
3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30개 대학들이 고대와 서울대를 뺀

대학들은 대부분 다 한 5% 정도만 올려주면 30%가 넘습니다.
전에 보셨죠? 정시 비중. 인서울은 기본 30% 넘어요. 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약간 변수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40%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소식을 다 들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일단 정부 가이드라인은
30% 이상인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교과 전형 30% 이상이면

괜찮다. 그러니까 지방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서울 대학이 좀 문제죠.

인서울 대학은 교과 전형이 적잖아요. 적고 학종이 큽니다.
논술도 크고요. 그런데 학종을 줄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도 알거든요. 학종으로 뽑아야지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되게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종은 안 건드려요. 그 결과 타격을 받은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을 줄이고요. 그 줄인 논술 전형의

퍼센트를 정시에다 얹어버려요. 그래서 학종은 오히려 늘었어요.
늘었고 대신에 논술 전형이 조금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축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시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대학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막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시를
늘리지 않을 건데 그런데 국립대학이니까 약간 버거웠겠죠.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학종으로 뽑겠다. 우리는 학종 100%로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능 위주 30% 이상은 나름대로 변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서울 대학에서 5% 늘어도 굉장히 크니까 그런데 역시 이거.
학생부 교과 비율 30%가 되면 안 따라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대학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에 비해서 대학 입시에 주는 영향 자체는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용되는 대학 자체가 35개
대학이거든요. 35개 대학인데 체감이 될 정도로 정시를 늘려야

되는 대학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장에서도 정시 늘리는 거 싫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정시에서 빵꾸가 나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 인원수 빼고
가는 겁니다. 대학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늘리는 거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또 정시는 수시 이월이 있기 때문에 3%가
플러스 오거든요. 이걸 감안해야 됩니다. 이 3% 느는 게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아요. 만약에 30% 이상이면요. 실제로 33%
이상이 돼버립니다. 수시 이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대학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이제
자, 2020년과 2021년은요. 거의 같아요. 뭐 구술 면접에서 조금

다르긴 하고 최소화유도 하기란 이거 먹히지 않아요. 그렇죠?
대학교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0과 2021 즉 고2와 고3은

거의 입시체계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1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점이 보입니다. 일단 중위권 대학들, 중위권

학생들의 희망인 그렇죠? 중위권 학생들이 갈 수 없는 대학,
대표적인 가천대.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는 대학인데 이런

대학들이 적성을 봐왔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적성을 폐지하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100% 확정은 아니에요.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바에 따르면 지금

고1부터는 적성은 폐지가 된 걸로 나와요. 그다음에 논술의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는데 이건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따라서 축소됐다? 정시를 늘려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논술의 비중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논술은 아직 가치가 있습니다. 10% 이상은 뽑을 거예요.

서울에서는요. 그다음에 구술과 면접을요.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 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종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서류가 대폭 줄잖아요. 학생부 기재되는 소재 거리도
없어지고 글자수도 줍니다. 자소서 역시 줄어요. 그러다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평가해야 될 요소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면접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요즘

대학들 면접에서 굉장히 고민 많습니다. 면접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전형이죠. 애들을 불러서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애들한테 물어볼 교수님들 인건비도 줘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면접을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점차 없애는 대학도 없어요. 더군다나 면접에서
물어보는 게 정부에서는 제시문 면접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의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거 하지 말고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 면접으로 해라가 비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의 학종 면접은요. 많은 대학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이 가는데 워낙 요즘 이제 학생부 자체를

학교에서 기재를 잘해주기 때문에 굳이 면접으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학생부라든가 자소서만으로 충분히 평가다운 평가를

해요. 대학들은 그러다 보니까 굳이 면접을 해야 돼? 돈이 많이
드는데?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일부 대학들은 면접을 없앤

대학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요. 아니지,
학생부가 너무 평준화돼버려. 상위 평준화되고요. 평가할 요소가

빠져버리니까 면접을 통해서 물어봐야 돼. 우리는 서류 면접도
하지만 제시문 면접도 할 거야라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이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를요. 고3이 되면 꼭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보는 대학이

면접을 안 봐요. 그럼 면접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면접을 봅니다. 그 보는 대학이 서류 확인 면접인지 아니면

추가로 지식적인 면을 물어볼 수 있는 제시문 면접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자, 2022년 중심으로 볼게요. 적성 폐지죠.
폐지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상당수 적성을 봤던 대학들이 물론

학생부 교과라는 이름으로 보긴 했지만 이 폐지되는 적성을
어디로 돌릴 것인지, 적성을 교과로 돌릴 것인지, 학종으로 돌릴

것인지, 논술을 만들 것인지, 정부의 가이드라인 무시하고
적성으로 밀어붙일 것인지 몰라요. 이건 언제 나오냐면요. 지금

고1들이 고2가 되는 5월달에 나옵니다. 1년 반 전에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올해는 잘 안 나올 겁니다. 변수가 크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크거든요. 얘네가 이동될
가능성이 높아요. 적성이 없어지면 이 애들이 교과로 갈 건지,

논술로 갈 건지, 학종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경쟁률의 차이가
확 커집니다. 변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논술. 정시 30%

가이드라인 때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논술을 줄일 것인가.
종합은 못 줄입니다. 대학들이요. 종합이 워낙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학점을 보니까 학종으로 뽑은 아이들의 학점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대학교 수업할 때 보니까 맨
앞에 학종 출신들이 앉는대요. 두 번째 라인 누가 앉냐면 학종

교과 보는 아이들이 봅니다. 맨 마지막은 봤더니 어떤 아이들이
본 줄 아세요? 논술 본 아이들이 많이 앉는다라고 하는 웃긴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하는 대학이 많아요. 그럼 정시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게 있죠.

학종은 아이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지원해서 붙어요.
충성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시는 어때요?

정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점수대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한 아이들입니다. 뭐가 생겨요? 눈높이의

격차가 생기죠. 자기가 정시로 붙은 아이들의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라 갈 수 있는 대학으로

붙은 거예요. 뭐할 가능성이 높죠? 열심히 공부해서 그다음에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싶겠죠. 이탈률이 높습니다. 입학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학 입장에서는요. 이 학생들이 4년
동안 꾸준히 다니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정시 합격생들이

생각보다 이탈률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를 늘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아이들은 충성심이 높지

않습니다. 학종은요. 준비된 아이들이요. 적응 잘해요. 학점
높습니다. 교수님들과 소통 잘해요. 충성심 높아서 이탈률이

거의 없습니다. 학종 줄일 수 없죠. 대학이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논술은요. 애매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논술을 줄이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시 올려줍니다. 그럼 논술은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논술은요. 대학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왜? 지원율이 높으니까 돈을 많이
내잖아요. 없애기도 좀 뭐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학들이

논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건데 생각보다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구술/면접 어떻게 할 거냐? 서류 간소화가

문제됩니다. 학생부 줄죠. 소재 없어지죠. 자소서 줄죠. 평가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신에 면접은 돈이 많이 듭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정답이 없어요. 대학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이 강화될 수도 있고

면접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면접은 강화되는 추세. 중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면접은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요즘 경향 자체는 좀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굉장히

큰 변수예요. 특히 어디에서? 수능과 학종에서 큰 변수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입시를 보는 고3은요. 2009

개정교육과정입니다. 9등급 모든 교과가 교양 과목 빼고 9등급
상대평가예요. 자, 고2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죠. 여기는요.

진로 선택교과가 생겨요. 원래 진로 선택교과는 등급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도기적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고2는

진로 선택교과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제가 나와버립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지원 학생 수가 적어요. 물리Ⅱ입니다.

물리Ⅱ인데 예전에는 안 했죠. 지금 학종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개설도 됩니다. 이 학생 수가 13명 이상이 되면 무조건

상대평가로 해야 돼요. 9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물리Ⅱ가
30명이 나왔다고 합시다. 4%가 1등급이죠. 1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교과를 했어요. 다른 교과 뭐 쉬운 거 자기는
뭐 사회 과목을 했다고 칩시다. 300명이 옵니다. 등급 받으면

4%니까 12명이 받을 수 있잖아요. 등급의 차가 확 벌어집니다.
물론 학종 같은 경우에는 교과의 성격도 보기 때문에 점수를

보정해주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신 점수 차가 커지기
때문에 변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개정교육과정이 다르긴 하지만 내신의 어떤 체계는 똑같아요.
9등급 상대평가로 갑니다. 그런데 고1 실제적인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 현재 고1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서 보는 공통 교과 있죠. 국어, 수학, 영어, 통합과학,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9등급제 상대평가로 갑니다. 그리고 과학
실험 자체는요.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작년에 고1 지금

고2는요. 과학 실험 평가도 있죠. 과학 탐구 실험도요.
상대평가로 갔어요. 9등급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과학 탐구 실험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2학년 가서 선택하는 진로 선택교과의 모든 등급이

사라집니다. 표준편차도 사라져요. 성적표에 들어가는 건요.
평균과 자기의 원점수와 그리고 어떤 성취 비율 있죠. 성취

비율, A, B, C, D, E 성취 비율에 해당되는 비율만 들어갑니다.
3개밖에 표기가 안 돼요. 원점수, 평균 그리고 A, B, C, D, E의

각각에 몇 %의 학생이 들어가는지. 평균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표준편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난이도 측정이

안 돼요.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상대적인

등수를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상당수의 2학년과 3학년 때

배우게 될 진로 선택교과가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교과의 30% 이상이

진로 선택교과가 돼버립니다. 30%의 점수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들은 고민이 많겠죠. 그럼 뭐가 생길까요? 1학년 때

상대평가로 나오는 공통 교과의 내신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내신 관리를요. 잘하셔야 돼요.

자, 표준편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등급 따기가 힘듭니다.
크죠. 개정교육과정이, 성적표상에 드러나는 것도 이렇게 큰데

자, 이 얘기죠. 진로 선택교과의 성적 산출 방식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기 때문에 표면상 나오는 정량평가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대신에 2015 개정교육과정은 수업
자체의 변화를 초점으로 뒀습니다. 수업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활동하지 않더라도 기본판 자체가 활동을

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고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가 좋아져요. 여기에 진짜로 그 전처럼 적극적으로

알아서 하는 애들인 경우는 학생부의 질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인 수업강화로 인해서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의 하나인 교과세특이 엄청나게 이전과는 다르게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과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2와 고1 간의 교과세특의 차이는 진짜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대신에 학교 간 학생부 격차는 줄어들었어요.
선생님에 따른 학생부 격차도요. 그전보다 많이 축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판 자체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탐구와 과제가 진짜 많아졌어요. 고1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좀 많은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과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과제는 수행평가

과제이기도 하지만 수행평가로 평가가 되지 않는 과제라
하더라도 교과세특에 들어가는 과제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발표 최소한 한 번 합니다. 1학기 때. 협업 활동, 조별
활동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학생부의 퀄리티가 정말로 좋아집니다. 거의 이제 고1 있죠.
고2도 지금 역대급 학생부가 나오는데 고1은 진짜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로 좋은 학생부가 탄생되는 세대예요.
즉 뭡니까? 역대 최강의 학종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수업 자체가 기존에 지식 전달과 문제 풀이
위주 수업에서 발표와 협동과 어떤 탐구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약해져요? 수능을 위한 수업에서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진정한 수능을 위한 수업을 배우려면 고1

일반교과, 일반교과는 수능에 들어가는 교과니까 그런 교과로
가든가 아니면 고3에 들어가서야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과제는 많아요.
그렇죠? 교과 진도의 양은 줍니다. 지식의 양이 준다는 거죠.

문제 풀 시간은 적어요. 왜? 과제하고 PPT 만들고 만들어야 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조별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전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종류에 속하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의

시간이요.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한 시간 한 시간
누적되다 보면 1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시간이요. 지금

고3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수능 교과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수능 점수가

산출이 되잖아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역대
최강의 학종 세대라고는 하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역대 최약체

수능 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수능 세대. 그럼 뭘까요? 가뜩이나
N수생이 수능에서 절대 강세를 보이는 게 지금의 수능

체제인데 얘네들이 지금 고1, 2들이 수능을 보는 그때는요.
어떨까요? 격차가 더 심하죠. 아마 연대와 고대 1강에 보셨죠?

연대와 고대와 지금 정시 합격생 중의 N수생의 비율이 각각
65, 58%인데 이 비중이 지금 현재 고2와 고1이 수능을 보는

2021과 2020년도에는요. 더 늘 수밖에 없어요. 재학생들이
정시로 가는 그런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왜냐?

반대급부로 학생부가 좋아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은요. 수능 공부 진짜 안 합니다. 많이 할 것 같죠?

선생님이 이렇게 진짜 진짜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진짜
실제 현장에서는요. 진짜 안 해요. 그나마 수능 공부 고3 때

하잖아요. 그럼 수시 접수가 다 끝나고 수능 2학기, 3학년 2학기
때 수능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될 시기인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한 반 3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 공부하는 아이들 5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왜? 수시

합격하거나 아니면 다 필요하지 않잖아. 대부분 다 수시
올인이기 때문에 수능최저가 되는 것만 봐요. 가뜩이나 수시의

절반 정도 이상은 수능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예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매해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이

전년도 대비 10%씩 마이너스예요. 재작년도 10%
마이너스입니다. 올해도 10%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점점 더

어떨까요? 이 보이지 않는 비율 자체는 커집니다. 수능을 보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가뜩이나 학령인구도 줄어요. 그렇죠? 전체

수능을 보는 학생의 수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죠?
상대평가 체제 내에서 등급 따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

분모가 작아지니까, 분모가 작아지면 어때요? 비율이 똑같은
등수인데 예전에 100등이 3등급 땄다면 지금은 3등급

못 딴다는 거예요. 상대평가 체제에서 전체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요. 등급 따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등급 따기가

힘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수능최저를 맞출 확률이 재학생들이
맞출 확률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변수가 커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학 전체로 봤을 때는 경쟁률은 약화되죠. 대신에
수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학생부 기재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고1부터 적용됩니다. 고2, 3은

똑같아요. 고1과는 완전 다르죠. 일단 고1 같은 경우에는
수상경력이 학기당 1개만 인정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수상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교과와

교과세특과 더불어 학업 역량의 3대 평가 요소예요. 그런데
이게 고2, 3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받은 수상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입학사정관들이 그런데 고1부터는요. 못 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1학년 때 상을요. 20개를 받았잖아요. 1개만

선택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뭡니까? 1학년 때 상 1개 받은 애랑
1학년 때 20개 받은 애랑 똑같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1개에서 대상 받은 애가 20개에서 우수상 받은 애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대학이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학에서 수상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요소를요. 줄이죠. 대폭 줄일 겁니다. 지금 고2, 3이

받을 수 있는 수상 경력에 대한 전체 평가에 대한 파이가 대폭
줄어들 겁니다. 그냥 있냐, 없냐만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수상에 대해서 평가가 약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희망,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희망 굉장히 빡세게 썼거든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써도 대학으로 안 가요. 그럼 대부분 선생님이

안 쓰겠죠. 봉사활동 특이사항 고2, 3은 썼어요. 그런데 솔직히
봉사활동 특이사항은요.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솔직히

봤을 때 그런데 고1에서 빼버립니다. 유명무실한 게 빠졌어요.
그다음에 소논문활동 물론 지금도 소논문활동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2, 3은요. 그런데 그래도 입력이
됐었죠. 그런데 고1부터는 아예 기재되지 않아요. 탐구

보고서라는 명칭도요. 분명히 잡아낼 겁니다. 교육청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다음에 자율동아리 2, 3학년은

똑같습니다. 동아리가 500자인데 이 500자 내에서 정규동아리와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 2개 선택해도 돼요. 비율 조절도

가능합니다. 정규동아리가 약하면 자율동아리를 많이 쓸 수

있어. 말씀드려서요. 그런데 고1부터는 어때요? 하나만 씁니다.

고2, 3은 두세 개도 돼요. 그런데 하나만 써야 돼요. 하나만
쓰는 것도요. 30자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 30자도 어느 거?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동아리에 대한 거. 말씀드렸죠? 대학이
정말 싫어하는 기재 방식이라고요.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이 속해 있는 동아리, 학생이 속해 있는 반, 학생이
속해 있는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설명. 정말 싫어합니다. 거의

평가에서 빼버려요. 이걸 쓰라는 거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자율동아리를 바라보는 느낌은 아, 만들었구나. 자기소개서에

나오는 자율동아리 정도 이런 활동을 했구나 정도입니다.
평가의 요소가 떨어지죠. 그럼 반대로 뭘까요? 정규동아리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겠죠. 지금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규동아리랑 자율동아리랑 등가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비중을 두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자율동아리가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1에서는 자율동아리가

정규동아리보다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기재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개인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는 자율동아리 설명인데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평가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건데요. 낮아지죠. 그래서 상설동아리에

못 들어가는 친구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옛날에는 안 들어가도
자율동아리 만들면 됐어요. 상쇄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상쇄가

안 됩니다. 그럼 뭐로 하셔야 돼요? 동아리 내에서 상쇄되는 게
아니라 다른 활동 내에서 상쇄하셔야 돼요. 학급 소모임, 수업

내 활동 이런 거로 정규동아리가 못 했던 모습들을요.
보여주셔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야 되는 거죠.

방과후 학교 기재 금지. 이것도 문제죠. 2, 3학년은 방과후 학교
기재됩니다. 똑같아요. 1학년부터는 방과후 학교 기재가 아예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웃겨요. 학교 내에서 하는 활동인데
기재하지 말래요. 아마 올해부터 수많은 학교에서 우리가

보충수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충수업 신청 인원이 대폭
급감했을 겁니다. 지금 진짜 방과후 학교 듣는 아이들은요.

순수한 열정,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신청을 한 아이일 겁니다. 아마 작년 대비해 반 토막

났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방과후 학교 점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가장 갖고 있는 특징이 나쁜

점이 뭐냐면요.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 활동을 안 해버립니다.
바꿔 말하면 학생부에 기재가 안 되잖아요. 활동 아예 안 해요.

그나마 방과후 학교 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순수하게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인 애도 있을 거예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런데 학생부에 들어가니까 하는 애들이 많을 겁니다.
학생부에 안 들어가잖아요. 안 합니다. 학생부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활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과후 학교 기재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동안 방과후 학교를
가지고 정말 특색 있는 활동을 했었던 좋은 학교들 있죠. 정말

노력하는 학교들, 노력하는 선생님들. 방과후 학교인데 국어,
영어, 수학만 있는 게 아니라 토론 수업도 있고 탐구하는

동아리도 있고 되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 해봤자 힘은 드는데

보람만 있을 뿐이지 학생부 기재가 안 되니까.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기재분량 축소입니다.

공통이에요. 자율 활동 1000자에서 500자로 줍니다. 고2, 3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특이사항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고1은

빠져버립니다. 진로 1, 2, 3학년 공통으로 1000자였는데 700자로
줍니다. 종합의견 1000자였는데 500자 줍니다.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500, 300, 500이니까 1300자가 줄었어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몇 자가 줍니까? 1800자가 줍니다. 엄청난 양의

분량이 빠지는 거예요. 평가하기가 힘들겠죠. 그럼 뭐로 가야
돼요? 철저하게 질 중심의 학생부 활동으로 가야 됩니다. 양으로

못 가요. 양으로 가면 중요한 활동이 묻혀버립니다.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요. 명확하게 자기의 브랜드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에 질 높은 활동으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적혀 있지 않으면요. 글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해요. 왜? 티가 나지 않으니까, 어필할
수가 없는 거야. 매력 포인트가 없는 겁니다. 꽉만 채워 있지

포인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부는 양적으로 승부가
불가능합니다. 왜? 모든 학생들이 양적으로는 채워져요.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과세특도 다 써줍니다. 이제는요.
이전에는 1등부터 10등, 3등급 넘는 애만 써줬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써줄 게
없어서 억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점수대로 써줬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쓸 거리가 너무 넘쳐납니다.
굳이 성적대로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대로 수업

시간에 관찰하고 애들이 한 것만 적어줘도 500자 나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차별화를 둬야겠죠. 선생님이

깔아놓은 판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행동하고 실천한 것들을 학생부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때요? 상향 평준화되고 글자수가
줄어들고 양적 평균화가 이루어지는 학생부가 차별화, 개별화를

통해서 정말로 질 좋은 학생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학종 서류도 바뀝니다. 자, 지금 고2, 3은 똑같죠. 왜?
입시체계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고1은 달라집니다. 자소서가

대폭 축소됩니다. 교사추천서는요. 거의 폐지하기로 거의 됐어요.
평가 요소 중의 하나인 평가를 안 한다고 하는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추천서는 그렇죠? 평가 요소가 빠집니다.
자소서도 간소화돼요. 어떻게 간소화되는 줄 아세요? 지금

2, 3학년 같은 경우는 1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 역량 물어봅니다. 1000자예요.
2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 1500자입니다. 세 번째. 나눔, 배려, 협력, 갈등,
인성 관련이죠. 1000자예요. 여기에 4번. 대학별로

자율활동이라고 해서요. 지원동기, 학업계획, 진로계획, 독서 등
해서 1000자에서 1500자 씁니다. 그래서 짧게는 1, 2, 3번 있는

경우에는 몇 자예요? 1000자, 1500자, 1000자 하니까 3500자.
4번까지 있는 경우에는 5500자에서 6000자까지 써요.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다는 얘기는 대학에서 평가할 요소가
많다는 거죠. 평가할 요소로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고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뀌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안이 나온 건데 어떻게 바뀌느냐? 1번이 기존에

1번과 2번 항목 있죠. 학업 역량과 교내 활동을요.
통합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지원한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지원동기와
본인에게 의미가 있었던 학습 경험, 교내활동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었던 1번과 2번의 항목이죠.
통합이죠. 합쳐서 쓰라는 거야. 그런데 그전에는 1000자,

1500자라 했잖아요. 2500자였습니다. 이걸 몇 자로 줄였어요?
1500자로 줄였습니다. 1000자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예전에 3번 항목이 뭐였어요? 나눔, 배려, 협동, 갈등이잖아요.
이걸 뭐로 바꿨느냐? 공동체 내에서 기여한 교내활동, 수업활동

포함해서 본인이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재하래요. 뭡니까?
인성적인 측면을 쓰라는 거잖아요. 몇 자로 줄었어요?

1000자에서 800자로 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학 자율 항목이
1000자에서 1500자였는데 800자로 줄이래요. 합치면

몇 자입니까? 1500자, 800자, 800자, 3100자. 최대
6000자였는데 3100자로 줍니다. 반 토막 나죠. 대학은

짜증 나요. 갈수록 평가할 요소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대학은요. 굉장히 정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교해지니까 뭐로

가야 돼요? 숫자에 또 이제 평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학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율을 키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 교과 성적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풍조로 가고 있습니다. 좀 웃겨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이 나 봐야 이제 알아요. 6번
수능 체제입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죠. 딱 보세요. 다 다르죠.

여기와 여기는 뭐가 다릅니까? 시험 범위가 바뀌어요. 왜?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뭐죠? 기하와 벡터가 수학(가)에서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어에서 국어에서 뭐가 들어가요? 원래 언어와 매체라는

교과가 있었는데 매체 빼고 언어 파트, 문법이거든요. 문법
파트만 봅니다. 그래도 수학에 기하와 벡터랑 문법 정도만 좀

다르지 거의 비슷하죠. 문법은 독서와 문법에서 다루니까.
그러니까 기하와 벡터 빼고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리로 가봅시다. 일단 선택교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없었던
기하와 벡터가 선택교과로 들어가요. 즉 이 세대, 고2만 기하와

벡터가 수능에 안 들어갑니다. 고3과 고1은 기하와 벡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리로 재수하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기하와 벡터 할 거면 불리하죠. 안 했던 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탐구 영역도 큰 범위를 보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문이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문과, 이과로 나눠

진행이 돼요. 그런데 지금 1학년부터는 철저하게 통합시킵니다.
즉 수능에서도요. 탐구 2개, 과학 2개가 아니라 탐구 하나, 과학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여기에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EBS 연계율이요.

이전까지는 70% 연계였거든요. 간접, 직접 포함해서. 이때는요.
50%도 중요한데 뭐로 바뀌느냐?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

위주로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가 커요. 어떻게 포인트가
크냐면요. 자, 일단 지금 고2부터 봅시다. 큰 변화 없어요. 뭐랑

뭐만 보라 그랬어요? 수학에서 지수, 로그랑 삼각함수가 문과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공통수학으로 바뀌거든요.

공통수학으로 바뀌어서 문과생들이 배우지 않아도 될 함수가
들어가 버려요. 어떻게 되죠? 학습 부담이 늘었죠.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기하와 벡터가 빠지죠. 이공계가 유리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얘네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시험을요. 그렇죠? 당연히 얘네가 재수할 경우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고3들이, 고3들은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안 배웠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재수하게 되면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기하와 벡터가 빠지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개정교육과정이긴 하지만 탐구 영역은

똑같이 가요. 그래서 변수는 수학밖에 없습니다. 수학밖에
없어요. 2021년 수능에서는요. 그런데 문제는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수학과
국어에서 선택교과가 들어가 버려요. 제가 정시 할 때 얘기했죠.

선택교과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표준점수가 선택교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표준점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대학에서요. 변환표준점수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성이 커져요. 그다음에

자,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화법과 작문이 언어와 매체보다 좀

수월한 교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로 가요? 쉬운
교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수학입니다. 확통, 미적분,

그전에 없었던 기하와 벡터가 들어가죠. 하도 요구사항이
많아서 수학계에서 그래서 선택교과가 확통과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로 나뉘는데 문과생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문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다 확통으로 갑니다. 거의 100% 갈 거예요.

이공계들은 보통 대학이 만약에 미적분과 기하와 벡터를 하라고
지정을 하면 미적분 아니면 기하와 벡터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너네는 확통 해도 돼라고 딱
명시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거 안 하죠. 어렵잖아요.

뭐로 해버립니까? 이공계생들이 확률과 통계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뭐가 생겨버려요? 같은 국어, 수학인데 선택교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선택교과에 쏠림 현상이 벌어집니다.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바뀌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교과에 따라서 표준점수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이 98점인데 선택교과를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표준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원점은 98점인데 얘는 뭐

130점이 나올 수도 있고 얘는 140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정시에서는 변환표준점수가 도입될

수도 있어요. 이게 크죠.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탐구도
큽니다. 탐구도 진정한 문이과 통합 교육이기 때문에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할 수도
있어요. 이전까지는 문과에는 사탐만 경쟁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빡세게 이과 애들은 탐구 영역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이공계 하는 애들이 사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바꿔 얘기하면 인문계 애들이 과학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과 아이들이 기존에 문과

아이들이 과탐을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과탐이 훨씬 어려운데. 그러면 어때요? 과탐 인원이 빠집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사탐으로 가요. 과탐에서 뭐가 발생되죠?
분모가 줍니다. 등급당 인원수가 줄죠. 등급 따기가 힘들어져요.

반면에 문과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각 등급당
인원수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존에 이과생들이

문과생들보다 조금 공부를 잘하잖아요. 뭐가 돼버려요? 상위
등급을 먹을 수도 있어요. 등급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변수가 많아져요. 문과생들도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과학은 뭐가 벌어집니까?

경쟁은 조금 줄지만 등급 자체 따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등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단점이 부각됩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이 만약에 사탐을 선택하게 될 때
대학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공대예요. 공대라면 당연히 탐구를

봐야겠죠. 상위권 대학은 문제가 안 돼요. 선호도가 높으니까
중하위권, 선호도가 낮은 대학이 문제죠. 선호도가 낮은

대학들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벽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공계임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이공계이긴 하지만 사탐 해도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공계 애들이 저 대학은 사탐만 해도 된대.

사탐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문과 애들이 삽입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공계 대학으로. 그래서 쉬운 사탐

과목으로의 쏠림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이전까지의 어떤 데이터가요. 무력화돼요.

이전까지는 사탐이 몇만 명 보고 사탐 내에서 각 과목별로 선택
비율이 비슷해요. 문과, 이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1부터는 문과, 이과가 쪼개지기 때문에 정말로 3월달부터
3월달 학력평가, 고3입니다. 고3, 3월달 학력평가부터

각 과목별로 인원수가 얼마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마 격차가 심해질 거예요. 쏠림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려면 등급을 맞추는 거잖아요. 쉬운 과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죠. 자, 제2외국어 탐구교과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절대평가 되잖아요. 이전까지 제2외국어는

탐구과목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2외국어가 똑같이 공부 안 하죠. 중국어나 일본어 빼고

운 좋으면 찍어서 2등급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탐구로 대체했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절대평가죠. 등급만 나옵니다. 어때요? 영어 2등급이 수학, 국어
2등급이랑 똑같아요? 다르죠. 결과는 똑같지만 그 공부하는

사람의 수준차가 다르죠. 똑같죠. 제2외국어 2등급이 다른
물리Ⅰ, 생활과 윤리Ⅰ 2등급과 같아요? 다르죠. 수준 차가

벌어집니다. 똑같은 2등급이지만 그 구성하는 인원수의
실력차가 벌어지잖아요. 대학들이 대체하겠습니까? 안 하죠.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의 한국사 취급받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제2외국어 선택할까요? 안 하죠. 왜? 메리트가

없어져요. 이전까지 제2외국어는 철저하게 탐구과목의 대체
효과입니다. 그런데 절대평가가 되는 순간 대체를 아마

대학들은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EBS 연계율이 50%고 간접연계

위주로 갔다는 얘기는 이전까지 많은 학생들이 고3 때 문제
뭐로 풉니까? EBS 교재로 풀어요. 물론 지금도 70%라고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질 반영되는 문제의 수가
7문제밖에 되지를 않아요. 듣기 같은 경우는 다 반영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듣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연계를 할 필요
없는 게 듣기거든요. 어차피 쉬우니까 reading이 문제죠.

reading은 직접연계하고 똑같이 나오니까 체감이 돼요. 그런데
이게 간접연계 50%로 바뀝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7개밖에

직접연계가 안 돼서 체감 연계가 떨어지는데 50%로 바뀌고
간접연계로 가면요. 직접연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EBS의 위상이 급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전까지는 EBS 교재만 풀어도 수능 준비가

얼추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옛날처럼 가는 거죠. 옛날처럼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죠?

수능 공부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수능 공부하기 힘들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아이들이 수능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아이들이 수능 공부 안 하고 왜냐하면 수능
필요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는데 공부할 양은 많아지게

됩니다. 문제집을 풀어야 되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수능을 에이, 너무 힘든데? 안 해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수능을 보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수능에서 등급 따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등수가

똑같은 등수지만 아이들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 안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줄죠. 주니까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위권은 똑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줄어드니까 등급 따기가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비연계라는 특징은 뭡니까?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랑 국어가 갑자기 왜 난이도가 높아졌는지

아세죠? 직접연계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EBS만 봐요. 그렇죠? 그전처럼 우리 엄마, 아빠

세대, 선생님 세대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집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적용력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거의

only EBS만 풉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다양성이 사라진 문제집을 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이용하면 될까요? 그렇죠. 강남인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강남인강은 어때요? 굉장히 다양한 교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강남인강의 위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다양한 문제를 풀어주거든요. 강남인강 자체로 보면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수능에서의 변수가 증가되죠. 2020년은요.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교과가 생기고요. 탐구 계열에서의 어떤 분리가 사라집니다.

정말로 아노미 상황, 혼란 상황이 벌어지는 수능 체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능에서의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수능이

어디와 관련이 있죠? 수능 최저와 정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수능이라고 하는 게 공부를 안 하지만 상위권으로 갈수록 거의

내신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수능이거든요. 수능의 비중이 커요. 제가 나중에 3강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수능을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 건데
수능의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상위권으로 갈수록 진짜 세요.

수능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해내셔야 돼요. 상위권일수록 아마

이 바뀐 환경에서 엄청나게 힘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곁에는요. 저희 강남인강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늘 옆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학생 감소.

이게 왜 변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모가 준다니까요. 분모가
줄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등급 따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작년도예요. 작년도 고3이죠.
지금 대학교 1학년, 작년도 고3이 56만 9천 명이었어요. 올해

고3은요. 50만 9천 명입니다. 무려 6만 명이 줄었습니다. 10%
이상 감소됐어요. 지금 고2 볼까요? 단위 수가 바뀝니다.

50만 명 대가 붕괴돼서요. 45만 6천 명이에요. 무려 5만 2천
명이 줍니다. 10% 다운이죠. 지금 1학년 볼까요? 40만 명 대

초반으로 확 떨어집니다. 41만 3천 명이 지금 고1이에요.
작년도보다 무려 4만 3천 명이 줍니다. 내년도 볼까요? 내년도

고1, 40만 명 대에 무너졌어요. 39만 6천 명입니다. 만 7천 명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중2 있죠. 중2부터는

또 인구가 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가다가 올라서 이렇게 갑니다. 한동안 40만 명 대 초반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현 중3까지는 거의 몇만 명이 날아갑니까?
11, 15, 17만 명. 거의 18만 명 정도가 날아가요. 이때 대비

몇 %가 날아가죠? 30%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경쟁할
상대가 줄어들었죠. 대입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은 감소됩니다. 누가 난리 났을까요? 대학이 난리 났어요.
인원수가 이렇게 18만 명 줄 때 대학 정원은 몇 명 주는 줄

아세요? 800명 줍니다. 전국에서, 난리죠. 특히 인서울권 대학은
괜찮아요. 선호도 높으니까 지방 대학 자동 폐교되는 학교 많을

겁니다. 대학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자, 학생
입장에서도 경쟁 자체가 덜해지죠.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대입 경쟁률은 줄 겁니다. 물론 상위권은 똑같이 갈
거예요. 그거는 인기 많은 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밑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줄어들어요. 문제는 수능에서의 이제 문제가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그렇죠? 수능이니까 전체 인원수가

줄어요. 인원수가 주니까 그다음에 수능 최저를 안 보는 수시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정시도 안 보고 수능 최저도 필요

없으니까 수능을 아예 안 보는 아이들이 많아지겠죠. 그 얘기는
뭘까요? 실제 수능을 접수하거나 수능을 접수했지만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의 수는 정말로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10% 선이지만 정말 심한 경우에는 20% 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대입에서의 경쟁률은 줄지만
수능 등급 경쟁률은 정말로 높아집니다. 누가 힘들어질까요?

인서울권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뭐가 위력이 세져죠? 수능의 위력이 세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인구가 적다라고 하는 거는 경쟁 자체는 줄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질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강 정말로 복잡다단하고 최악의 해라고 불리우는 올해,
2019년도 올해 고3과 고2와 고1의 입시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입시 체계도 다르고요. 교육과정도 다르고요. 수능
체제도 다른 완전한 혼란의 시대.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리만 지키시면 됩니다. 위 학년이 뭐가 문제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년이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재수보다는 현역에서 입시를 끝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 물론 수시가 엄청나게 많이 뽑긴 하지만 수능

준비해야 됩니다. 하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왜 우리가 수능을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3강에서 그 이유를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강 학년별 입시 비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